

맹자(孟子)에게 배우는 설득과 수사



나 민 구
한국외대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전국시대와 유세문(遊說文) 『맹자』
- III. 유세 목적과 설득 내용
- IV. 유세 정의 및 방법론
- V. 유세문 분석
 - 1. 등문공(滕文公)
 - 2. 양혜왕(梁惠王)
 - 3. 제선왕(齊宣王)
- VI. 유세문 설득 방법
- VII. 맺음말

맹자(孟子)에게 배우는 설득과 수사

I. 들어가는 말

설득을 목표로 하는 수사학은 서양에서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역사적으로 평행선을 그으며 발전하여 왔다. 중국에서는 이미 선진(先秦)시대(BC 206년 이전)의 문헌에서 수사학이 발아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역경(易經)』에 나와 있는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 수사는 정성에 의해 다듬어진다)이란 문장에 ‘수(修)’와 ‘사(辭)’를 연이어 사용한 ‘수사(修辭)’란 어휘가 제일 처음 나타났다. 그러나 그 당시 연이어 쓰인 ‘수사’의 의미는 지금 쓰는 ‘말 닦음’의 의미와는 사뭇 달랐다. 그 후 양대(梁代, 502-557) 중국 고전 수사학의 전범이라고 평가받는 유험(劉勰)의 『문심조룡(文心調龍)』 「정채(情采)」편에 “언이문원(言以文遠, 언어는 수식을 통하여 멀리 전달된다)”이라는 글이 있다. 이것은 지금의 의미와 유사한 ‘수사’의 개념을 함의한다. 여기서 ‘문(文)’의 의미는 ‘수식하다’이므로 말이 잘 전달되려면 장식과 그 기술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잘 말하기’와 ‘잘 전달하기’ 개념을 읽을 수 있게 한다.

맹자(孟子, BC 372-BC 289)는 유가(儒家)의 창시자인 공자(孔子, BC 551-BC 479)의 사상을 계승하여 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이론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유교의 윤리·교육사상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통치자를 교화하고 사회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맹자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맹자(孟子)』를 저술하여 왕도정치와 민본주의를 주창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현실은 이상주의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참담한 양육강식의 전쟁터였다. 맹자는 『맹자』를 통해 백성들의 고통과 비참한 생활, 인간성 몰락으로 인한 도덕성의 상실,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윤리적인 혼돈 속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올바른 지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즉 『맹자』는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민심을 위로하고 강한 설득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집필된 것이다.

II. 전국시대와 유세문(遊說文) 『맹자』

맹자가 활동하던 전국시대 당시는 각국의 제후(諸侯)들이 왕이라 칭하며 부국강병(富國強兵)에 힘쓰면서 모두가 힘으로 천하를 통일하는 패도(霸道)를 꿈꾸던 시기였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맹자는 공자의 학통을 계승하여 ‘인정(仁政)을 통한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실현’이라는 자신의 사상을 확립하고, 이를 실제 정치에서 실현하고자 각국의 제후들을 만나기 위해 유세(遊說)의 길을 떠났다. 그러나 제후들이 꿈꾸는 ‘패도’와 맹자의 사상인 ‘왕도’는 그 방향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제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자신의 도리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을 연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맹자』에 담겨진 유세문(遊說文)의 대화 속에는 고도로 계산된 맹자의 설득전략이 담겨 있으며, 유세 목적상 말로 설득하거나 글로 읽혀야 했기에 뛰어난 수사적 기교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또한 대화체의 특성상 『맹자』의 문장에는 대화하는 양측의 관점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변론의 과정과 기복이 그대로 재현되어 유세자의 말투가 사실적으로 담겨있다.

맹자는 제후들에게 논증과 감동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효과적으로 유세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설득의 수단인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logos)를 충분히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유가의 정통을 잇는 자신의 위상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과 주위의 존경(에토스), 유세 상대방의 상황과 특성, 심리에 따라 달라지는 유세의 전개(파토스), 다양한 담론과 논거의 활용(로고스)은 맹자의 유세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비록 현실에서 그의 정책이 모두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상대방을 통렬히 설득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 정신과 기상 그리고 방법들이 후대의 정치가, 사상가, 문학가들에게 큰 감동과 영향을 주었다.

『맹자』는 전반적으로 각국의 제후에게 유세한 내용, 각 학파 학자들과의 변론, 제자들과의 문답 그리고 맹자 자신의 어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각국의 제후에게 유세한 내용이다. 맹자가 가장 바랐던 것은 제후에게 자신의 사상과 정책을 알리고 이것이 채택되어 자신의 왕도정치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맹자』 전편에서 맹자가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제후에게 유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앞 쪽에 실려 있는 「양혜왕장구(梁惠王章句)」, 「공손축장구(公孫丑章句)」, 「등문공장구(滕文公章句)」 등 3편에 맹자의 유세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맹자』를 상맹(上孟), 즉 「양혜왕장구」, 「공손축장구」, 「등문공장구」 3편과, 하맹(下孟), 즉 「이루장구(離婁章句)」, 「만장장구(萬章章句)」, 「고자장구(告子章句)」, 「진심장구(盡心章句)」 4편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상맹 3편은 맹자의 유세 상황과 변론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고 하맹 4편은 맹자의 사고방식과 인간성을 여러 각도에서 기록한 것이다.

『맹자』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맹자가 제후들에게 유세한 회수는 다음과 같다.

「양혜왕장구 상, 하」	양혜왕(梁惠王) 5회, 양양왕(梁襄王) 1회, 제선왕(齊宣王) 12회, 추목공(鄒穆公) 1회, 등문공(滕文公) 3회
「등문공장구 상」	등문공 3회
「이루장구 하」	제선왕 1회
「만장장구 하」	제선왕 1회

특히 「양혜왕장구 상, 하」에는 제후에게 유세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등문공장구 상」에도 등문공에게 유세한 내용이 3회 나온다.

Ⅲ. 유세 목적과 설득 내용

맹자는 전국시대 당시의 상황을 사회적 혼란과 사상적 위기의 시대로 파악하였다. 전국시대는 말 그대로 전란의 시기로 혈연과 예에 의거한 봉건제가 무너지고 힘에 의한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던 사회였다. 그는 사회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전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맹자는 패도를 위한 부국강병의 정책을 앞 다투어 제시하는 다른 제자

백가의 책략들과 상반되게 백성들을 살리고 결국 천하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왕도를 제창한다. 그리고 맹자는 왕도사상을 제후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나긴 유세의 여행을 떠났다. 즉 자신의 고향인 추(鄒)나라를 떠나 제(齊), 송(宋), 설(薛), 추(鄒), 노(魯), 등(滕), 양(梁), 그리고 다시 제나라를 거치며 각국의 제후들을 만나 자신의 이상을 설파하였다.

맹자는 이 과정에서 왕도정치의 방법으로 경제적 안정과 도덕적 교화를 내세웠고 실현가능한 이론적 근거로 성선설(性善說)과 수양론(修養論)을 주장하였다. 맹자의 성선설은 도덕적인 본성의 선형적 보편성을 제시함으로써 군주에게는 왕도정치를 실현할 타고난 자질이 있고,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정치에 의한 도덕적 교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타고난 자질이 동시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맹자』를 저술한 가장 큰 목적은 맹자 자신의 주장을 선전하여 사람들의 신뢰를 이끌어 내고자 한 것이다. 맹자는 자신이 논변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어지러우니 부득불 전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논변을 해야만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설득을 전개해 나갔다.

또한 『맹자』는 일문일답의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논변을 펼쳐 나가며 상대방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였다. 더욱이 이런 대화는 탁상 공론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꼬집어 내는 정밀함을 보였다. 맹자의 수양론 역시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도덕적 인격을 갖추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왕도정치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단지 군주의 마음 안에 있는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 다른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밀고 나가는 자연스러운 일일뿐이라고 설득하였다.

IV. 유세 정의 및 방법론

『맹자』는 자신의 주장을 상대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주안점을 둔 글이므로 산문의 문체상 의론문(議論文) 또는 논설문(論說文)에 속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화체 논설문, ‘의론문’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맹자』 대부분의 글이 유세 과정에서 제후들에게 맹자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변론하는 내용, 즉 유세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유세문은 산문의 문체 분류상 의론문 또는 논

설문의 하위분류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논설문에 더 가깝다. 여기서 말하는 설(說)이란 문체가 선진시기 책사(策士)들의 ‘유세’의 말에서 기원했기 때문이다. 유세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국 산문사에서 따로 분류되거나 정의 내려진 적은 없다. 먼저 ‘유세’의 정의를 보자.

遊說: “謂古代叫做‘說客’的政客, 奔走各國, 凭着口才勸說君主採納他的政治主張。”
고대에 ‘세객(說客)’이라 불리던 ‘정객(政客)’들이 각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말재주에 의지해 군주를 설득하여 자신의 정치주장을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

游說: “戰國策士, 游行各國, 逞其口辯以動人聽, 謂之游說. 又作遊說.”
전국시기의 책사들이 각국을 떠돌아다니며 그 말재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기꺼이 자신의 주장을 들도록 하는 것을 游說라 하며 遊說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유세’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세문은 논설문의 하위 문체로서 자신의 ‘입언(立言)’을 확립한 정객(政客)들이 각국의 제후를 찾아가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받아들일도록 제후를 논리적·감성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의 대화내용을 글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화체의 유세문에는 현장감과 생동감이 그대로 드러나며 하나의 주제에 대한 기승전결의 대화상황이 나타나 있어 『논어(論語)』나 『노자(老子)』의 어록체와 달리 완전성을 지닌다. 맹자는 이러한 ‘유’와 ‘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孟子謂宋句踐曰, “子好遊乎? 吾語子遊. 人知之, 亦囂囂. 人不知, 亦囂囂.” 曰, “何如斯可以囂囂矣?” 曰, “尊德樂義, 則可以囂囂矣. 故士, 窮不失義, 達不離道. 窮不失義, 故士得己焉. 達不離道, 故民不失望焉. 古之人得志, 澤加於民. 不得志, 修身見於世.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盡心 上」 9章

맹자가 송구천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유세하는 것을 좋아 하는가? 내가 그대에게 유세에 대해 말해 주겠네. 유세의 상대방이 알아듣더라도 담담해야 하며 그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또한 담담해야 하네.” 송구천이 말하였다. “어떻게 하여야 담담할 수 있습니

까?” 맹자가 말하였다. “덕을 높이고 의로움을 즐거워하면 담담할 수 있네. 그러므로 선비는 궁하여도 의로움을 잃지 않고 영달하여도 도에서 떠나지 않네. 궁하여도 의로움을 잃지 아니 하기 때문에 선비는 자신을 얻는 것이고, 영달하여도 도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는 것이네. 옛 사람들은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이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의 몸을 닦아서 세상에 보였네. 궁하면 그 몸을 홀로 선하게 하고 영달하면 천하를 함께 착하게 사는 것이네.” 「진심 상」 9장

“說大人，則藐之，勿視其魏魏然。當高數仞，榑(題)數尺，我得志，弗爲也。食前方丈，侍妾數百人，我得志，弗爲也。般樂飲酒，驅騁田獵，後車千乘，我得志，弗爲也。在彼者，皆我所不爲也。在我者，皆古之制也。吾何畏彼哉。” 「盡心 下」 34章

“대인에게 유세할 때에는 그를 가볍게 보고, 그의 위세가 드높은 것을 보지 말아야 한다. 집의 높이가 몇 길이고 서까래가 몇 자인 것을 내가 뜻을 얻는다 하더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음악을 즐기고, 술을 마시며, 말을 달려 사냥을 다니고, 행차할 때 뒤 따르는 수레가 천승이 되는 것을 내가 뜻을 얻는다 하더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에게 있는 것은 모두 내가 취하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은 다 옛날의 제도이니, 내가 어찌 저들을 두려워하겠는가!” 「진심 하」 34장

이상의 맹자가 언급한 내용을 볼 때 맹자는 ‘유세’를 하나의 개념으로 언급한 적은 없으나 각각 ‘유’와 ‘세’의 설명을 통해 유세자의 마음가짐 및 태도를 말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세자는 평소에 덕(德)을 높이고 의(義)를 즐겨 유세 상대방의 반응에 담담해야 하며, 상대가 가지고 있는 부귀를 가볍게 여겨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상은 유세자의 ‘존덕락의(尊德樂義, 덕을 높이고 의를 즐김)’의 태도와 ‘학고지제(學古之制, 옛날의 제도를 배움)’의 자부심에서 오는 것임을 말하였다.

맹자는 유세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양기(養氣)와 지언(知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창하였다.

“夫志，氣之帥也。氣，體之充也；夫志至焉，氣次焉。故曰，持其志，無暴其氣。”(중략) “我知言，我善養吾浩然之氣。” 敢問，“何謂浩然之氣？” 曰，“難言也。其爲氣也，至大至剛，以直養而無害，則塞於天地之間；其爲氣也，配義與道，無是餒也。是集義所生者，非義襲而取之也；行有不慊於心，則餒矣。”(중략) “何爲知言？” 曰，“誑辭，知其所蔽。淫辭，知其所陷。邪辭，知其所離。遁辭，知其所窮；生於其心，害於其政。發於其政，害於其事；聖人復起，必從吾言矣。” 「公孫丑 上」 2章

“의지는 기를 통솔하는 것이고 기는 몸에 가득 차있는 것이니, 의지가 지극한 것이고 기는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의지를 잘 간직하되 기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하였다. (중략) 맹자가 말하였다. “나는 말을 알며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감히 묻겠습니다. 무엇을 호연지기라고 합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말하기 어렵다. 그 기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니 올바름으로 잘 길러 해침이 없으면 천지의 사이에 꼭 차게 된다. 그 기는 의로움과도 짝하는 것이니 이것이 없으면 굶주리게 된다. 이것은 의로움을 축적하여 생겨나는 것이지 갑자기 의가 엄습하여 취해지는 것은 아니니 행하고서 마음에 흠족하게 여기지 않는 바가 있으면 이 기는 굶주리게 된다.” (중략) “무엇을 지언이라 합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치우친 말에 그가 가려진 바를 알며 방탕한 말에 그가 빠져있는 바를 알며 정도가 아닌 말에 그가 어긋나 있는 바를 알며 피하는 말에 궁색함을 알 수 있다. 마음에서 생겨나 정사에 해를 끼치며 정사에서 나타나 일에 해를 끼치는 법이다. 성인이 다시 나온다 하여도 반드시 내 말을 따르실 것이다.”

「공손축 상」 2장

맹자의 말에 의하면 ‘지언’은 다른 사람의 말 속에 숨겨진 뜻을 통해 그가 빠져 있는 잘못된 상태를 아는 것인데, 그렇다면 상대가 그러함을 알고 자신 또한 그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양기’이다. 평소 의(義)와 도(道)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에 따라 내면에 호연지기(浩然之氣)가 길러지면 자연스럽게 지대지강(至大至剛)하게 되니 폐(蔽), 함(陷), 리(離), 궁(窮)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그 말 또한 피(誑), 음(淫), 사(邪), 둔(遁)함을 피할 수 있어 도리에 맞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언(知言)으로 지심(知心)하며 양기(養氣)로 입언(立言)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즉 ‘지언’은 상대의 말을 파악하여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읽어냄으로써 그 사람을 알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과 심리에 맞게 유세할 수 있

게 된다. ‘양기’는 내면의 기(氣)를 기르는 것으로 의(義)를 실천함으로써 얻는 도(道)로 인하여 어느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신이 터득한 사리를 밝힐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어떤 권세 있는 군주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도를 당당하게 유세할 수 있었던 것이다.

V. 유세문 분석

1. 등문공(滕文公)

등문공은 세자시절 맹자와 만나 그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고, 또 아버지인 등정공(滕定公)의 장례절차를 거치며 맹자의 말에 확신이 섰다. 그 후 맹자를 등(滕)나라에 초빙하여 나라 안팎의 일에 자문을 구하는데, 그는 이미 맹자에 대한 존경과 인정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로 맹자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였다. 등문공은 크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과 등나라의 외교문제 등 두 가지에 대해 맹자의 자문을 구하였다. 이에 맹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향산(恒産)¹⁾과 향심(恒心)²⁾이 중요하므로, 향산을 위해서는 토지제도 및 세법을 빠르게 제정하고 향심을 위해서는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이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한 가지 주장을 펼쳤던 맹자였으나, 등나라의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확언하지 않고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그 선택을 등문공에게 돌린다. 그러나 맹자는 실제적으로는 등문공이 어느 나라를 섬길 것인지에 신경 쓰기보다는, 선(善)에 힘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왕과 함께 끝까지 나라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한 맹자의 설득요소는 다음 언급에 잘 나타나 있다.

1)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

2) 늘 지니고 있는 떳떳한 마음

滕文公問曰, “滕小國也, 間於齊楚. 事齊乎? 事楚乎” 孟子對曰, “是謀, 非吾所能及也. 無已, 則有一焉. 鑿斯池也, 築斯城也. 與民守之, 效死而民弗去, 則是可爲也.”

<梁惠王 下> 13章

등문공이 물었다. “등나라는 작은 나라이고,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나라를 섬겨야 합니까? 초나라를 섬겨야 합니까?” 맹자가 대답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제가 언급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신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못을 파고 성을 쌓아 백성들과 함께 지켜서 죽음에 이르러서도 백성들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해볼 만한 것입니다.” <양혜왕 하> 13장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유세할 때에 맹자는 향산(恒産)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왕은 백성의 부모 된 자로서의 도리와 하(夏), 은(殷), 주(周) 삼대의 예를 들어 정전법(井田法)³⁾과 조법(助法)⁴⁾의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인륜이 밝혀지면 백성들이 친목하게 된다는 도리로 향심(恒心)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성공여부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말로 마무리한다.

등문공은 전국시대 당시에 맹자의 왕도정치를 실제로 실현한 유일한 왕이었다. 맹자가 등문공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등문공이 세자시절 맹자와의 만남을 통해 깊이 감명을 받은 상태였고, 둘째, 등문공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다독여주고 이치를 이해시켜 등문공 스스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2. 양혜왕(梁惠王)

원래 진(晉)나라였던 양(梁)나라는 막강한 나라였지만 세 나라로 갈라지고 힘이 약해져 제(齊), 진(秦), 초(楚) 등에 연달아 패하며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 이에 부국강병으로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였고, 양혜왕은 책사들을 초빙해 자문을 구하였다. 등나라에서는 등문공이 자신의 유세에 따라 실제로 인정(仁政)을 실시하였으나 나라가 워낙 작았으므로 맹자 자신의 이상을 펼치는데 한계를 느껴서 좀 더 큰 나라에서 뜻을 제대로 펼쳐보고자 양나라에 도착하

3) 고대 중국의 하나라·은나라·주나라에서 실시한 토지 제도

4) 법을 집행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

였다. 부국강병을 꾀하여 ‘이(利)’를 추구하는 양혜왕에게 맹자는 ‘이(利)’가 아닌 ‘인의(仁義)’의 도리로 왕도를 실현할 것을 설득해야만 했다. 그리고 왕의 패도를 향한 욕심을 폭로하여 그 실체를 깨닫게 하고, 진정 백성을 위하는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양혜왕은 첫 대면에서부터 자신의 최고 관심사인 나라를 이롭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했다.

“叟不遠千里而來，亦將有以利吾國乎”

“어르신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다른 유세자들처럼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방도를 가지고 있으신지요?”

양혜왕의 맹자에 대한 태도는 다분히 이중적이다. 맹자를 어르신(叟, 수)으로 예우함과 동시에 천리를 마다않고 온 맹자를 조금은 딱하게 바라본 것이다. 여기서 ‘역(亦, 역시/또한)’이라는 글자를 사용함으로써 맹자 또한 다른 유세자들과 별 차이가 없으리라는 낮은 기대감과 그래도 혹시나 특별한 것이 있는지 귀를 기울여 보려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맹자는 여기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양혜왕의 마음을 읽었다. 그래서 왕이 ‘이’를 추구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하고, “위아래 모두 서로 이익을 다투면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上下交征利而國危矣)”라는 이치를 가르쳐주었다. 이어 “진실로 의로움을 뒤로 하고 이로움을 앞세우면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苟爲後義而先利，不奪不餓)”라고 그 이유를 밝힌다. 그리고 인과 의의 효과를 언급하고, “왕께서는 왜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의만 있을 따름입니다(王何必曰利，亦曰，仁義而已矣)”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문장에서 먼저 ‘하필(何必)’이란 단어를 써서 왕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왕이 질문할 때 사용했던 ‘역’이란 단어를 또 사용하여 역시 인의가 중요하다고 방점을 찍었다. 왕이 사용한 ‘역’은 맹자도 다른 유세자들과 별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는 뜻의 ‘역’이나, 맹자가 쓴 ‘역’은 옛 성왕(聖王)들처럼 양혜왕도 역시 인의를 행할 뿐이라는 뜻으로 쓰인 ‘역’이다. 이렇게 맹자는 왕이 썼던 같은 단어를 교묘히 시의적절하게 중복 사용하여 함축된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앞의 상황과는 대조적인 내용으로 “未有仁而遺其親者也, 未有義而後其君子也(인하면서 그 부모를 버리는 이는 없고, 의로우면서 그 임금을 뒤로 하는 이는 없다)”는 사실을 말하여, 이와 인의의 효과를 대비시켰다. 이런 식으로 맹자는 이익보다는 인의를 앞세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3. 제선왕(齊宣王)

맹자가 당시 유세하기 위하여 만나러 갔던 제선왕은 제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춘추오패를 꿈꾸었다. 그래서 전국의 학자 선비들을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고 부국강병에 힘썼다. 그 전에 유세하러 갔던 양혜왕의 이른 죽음과 그 뒤를 이은 양양왕에 대한 실망으로 양나라에서 이상을 접은 맹자는, 제선왕이 즉위하여 그를 초빙하자 다시 큰 희망을 가지고 제나라로 떠난다. 제나라로 가는 유세 행렬은 그동안 여러 나라를 거치며 맹자의 명성이 높아져 굉장히 큰 규모였다.

춘추오패를 꿈꾸는 제선왕에게 맹자는 그가 가진 이상의 위험함과 불가함을 깨우쳐 주어야 했다. 그래서 맹자는 유세 과정을 통하여 제선왕의 마음을 열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려했다. 그러나 결국 제선왕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고 연(燕)나라를 무력으로 취한다. 이에 맹자는 연나라와의 전쟁을 이제라도 그만두고 연나라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설득하고자 했다. 천하를 제패하려는 욕심으로 가득한 제선왕에게 맹자가 인의의 도리와 왕도를 납득시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그래서 맹자는 제선왕이 자신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의 주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긴 심리전을 펼친다. 이 과정에서 맹자는 제선왕의 마음을 한번은 어루만지고, 한번은 내치는 과정을 반복하며 딱딱하게 굳어 있던 제선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과정을 거듭한다. 그러자 제선왕이 마침내 심복(心服)하며 스스로 맹자에게 귀를 열었고 맹자는 자신의 왕도정치 이상을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맹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선왕은 대뜸 힘으로 천하를 제압했던 춘추오패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맹자는 이 대답을 교묘히 회피한 채 먼저 일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제선왕의 마음을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었다. 그리고 왕이 추구하는 ‘대욕(大欲)’의 위험성을 경고하여 왕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유도한 후 자신의 논지를 도도하고 막힘없이 펼쳤다. 그

과정에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 맹자는 교묘한 질문과 날카로운 비판으로 왕의 마음을 한번 어루만지고 한번 일격을 가하는 ‘일타일포, 일종일금(一打一抱 一縱一擒)’의 과정을 세 번 거듭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대욕에만 갇혀 있던 왕의 마음은 부드럽게 열리기 시작했다. 이에 맹자는 서두르지 않고 왕의 마음이 완전히 자신에게 열릴 때를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논지를 거침없이 이야기하였던 것이다. 고도의 심리전이 펼쳐진 이 장은 제선왕의 마음 흐름에 따라 전체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맹자는 왕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왕의 관심사를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인 ‘보민이왕(保民而王, 백성을 보살피는 왕의 길)’으로 이끌었다. 두 번째 단락은 한 사람의 일화를 인용하여 왕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인정(仁政)으로 유도한 부분이다. 이로써 자신의 깊은 마음을 알아주는 맹자에게 왕이 기뻐하며 마음을 더욱 열게 된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기에 두 가지의 과장된 비유를 들어 왕의 실상을 일깨우고, 맹렬한 질문을 통해 왕의 ‘대욕’의 실체를 밝혀낸다. 그리고 목적이나 수단 이 일치하지 않아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의 연목구어(緣木求魚)를 들어 왕의 대욕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한 후 ‘발정시인(發政施仁, 인을 실시함으로 정치를 하다)’의 경우를 가설하여 보여줌으로써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까지가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이다. 이렇게 하여 맹자에게 심복한 제선왕에게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 맹자는 자신의 정치이상의 근본 전제인 “백성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에 대해 구체적 정책으로 설명하고 유세를 마무리하였다.

VI. 유세문 설득 방법

맹자 유세문의 구체적인 설득 방법으로는 첫째, 논증법을 들 수 있다. 주장의 논리 전개를 위해 다양한 논증방법을 활용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예증법(例證法), 삼단논법(三段論法), 유비추론(類比推論)을 많이 이용하였다. 맹자는 시(詩)와 서(書), 그리고 고사(古事)나 고인(古人)의 말을 예로 들어 사용함으로써 주장하는 내용을 위한 논거로 삼았다. 또한 생활 속의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복잡한 설명 대신 하나의 적절한 예시가 더 강한 설득력을 갖게 하였다. 맹자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이론을 나열하는 방법만으로는 유세의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이다. 그리고 두 사물 간의 유사성을 이용한 유비 추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유세의 상대방이 실상을 깨닫고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일도록 하였다. 삼단논법 또한 자주 활용하였는데 삼단논법과 예증법을 결합한 형태의 논증인 대중식삼단논법과 둘 이상의 삼단논법을 모아 하나의 연결체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조하는 논증법인 연쇄삼단논법으로까지 확장하여 사용하였다. 다음도 맹자가 활용한 대표적인 논증법이다.

대전제: 백성들의 삶의 법칙은 항산(恒産)이 있어야만 항심(恒心)이 있다는 것이다.

(民之爲道也, 有恒産者, 有恒心. 無恒産者, 無恒心.)

소전제: 항산이 없어 항심이 없으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여 죄에 빠지게 된다.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己, 及陷乎罪.)

결론: 현명한 군주는(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항산이 보장되도록) 백성들에게서 거두는 세금에 제한을 둔다.

둘째,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하였다. 맹자는 수사학적 논증 이외에 문학적 수사기교를 통하여 감성적으로도 상대방을 설득하였다. 맹자가 유세문에서 사용한 수사법으로는 대구법(對偶), 배열법(排比), 반복법(復疊), 대조법(映襯), 연쇄법(頂眞), 점강법(層遞), 교차배열법(錯綜), 생략법(省略), 묘사법(示現), 설문법(設問), 문법(回文), 품사전환법(轉類 또는 轉品), 열거법(列舉)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특히 대구법과 배열법, 반복법을 자주 활용하였는데 청자나 독자는 이러한 정제된 형식과 일정한 리듬을 따라가며 부지불식간에 심리적으로 그 주장에 설득 당하게 된다. 또한 배열식 문장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문장의 기세를 왕성하게 하였고 리듬감을 살렸다. 그러나 정제된 형식만으로는 지루해지기 쉬우므로 교차배열법 또한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의외의 느낌을 살리고 문장에 생동감을 불어 넣었다. 즉, 맹자의 글은 기본적으로 기세를 살린 배열, 대구, 반복, 연쇄의 수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비유법을 자주 활용하여 논리에 예술성을 더함은 물론 유세의 대상이 쉽고도 인상적으로 주장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이끌었다. 설문법 또한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유세의 상대방을 자신의 논점 방향으로 이끌었다.

맹자는 논리와 감성을 상황에 맞게 결합하여 상대방의 상황과 심리에 따라 자유자재로 대화를 이끌어가며 상대가 감동하여 열복(悅服)하게 하였다. 그런

후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들과 함께 그동안의 유세를 정리한 『맹자』를 저술하여 뛰어난 설득방법과 수사기교를 후대에 남겼다.

Ⅶ. 맺음말

논리와 감성을 활용한 풍부한 설득력을 가진 『맹자』의 유세문은 맹자 자신의 ‘지언’과 ‘양기’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맹자는 수양을 통한 호연지기로 인해 사리에 통달하였고 말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글에는 도리에 통달한 주장이 시의적절한 표현으로 정연한 논리에 따라 전개됨으로써 읽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을 갖추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펼쳐진 맹자의 거침없는 유세는 그 자신의 온 몸에 충만했던 호연지기에서 나온 것이다. 바로 이것이 『맹자』 글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즉 맹자의 유세문은 글에 자신의 ‘지언’과 ‘양기’를 상황에 맞게 표출한 것이었다. 결국 『맹자』의 설득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맹자가 그 혼란한 사회에서 백성을 위하라는 자기의 주장을 전하고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그의 주장은 ‘인의예지’를 배양하여 바람직한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자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맹자는 논변을 전개하여 군주를 설득함으로써 전국의 어지러운 혼란을 종식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가르침은 후세에까지 『맹자』에 실린 유세문을 통해 그 사상과 설득의 수사적 방법론이 길이 전해지고 있다. 🌈

【 참고문헌 】

- 김연진, 2009, “맹자의 유세문 연구,” 『한국외대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논문』.
나민구·김정희, 2010, “맹자의 수사학,” 『수사학』 제12집, 5-31쪽.
이퇴, 2009, “맹자에 나타난 설득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 맹자와 왕의 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논문』.